# 전세계 '붓다의 딸들' 6월 한국에 모인다

## 세계 여성불자모임 샤카디타, 18차 대회 한국서 개최

**6월 23~27일, 코엑스·봉은사 일대**
**'위기의 세상 속 깨어있기' 주제로**
**전 세계 40개국서 참여할 것 예상**
**28~30일 월정사·백담사 등 순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 세계 여성수행자들의 대화합 장이 될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6월 23~27일 서울 코엑스와 봉은사, 전국비구니회관 등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전국비구니회와 샤카디타 코리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 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대회는 2004년 열렸던 8차 대회에 이어 19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세계의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해야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6월 2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개막식 후 5일간 행사에는 다채로운 일정들이 준비됐다. 총 6개 주제의 논문발표와 62개 워크숍, 포스터 발표, 세계의 명상, 저녁예불, 저녁법문, 문화공연, 전시 등이 이어진다.

6개 주제는 △한국의 불교여성 △깨달음의 추구:비구니 수계의 현황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무상성 △순례, 수행,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존재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난 여성들이다.

논문발표와 워크숍, 각종 문화공연은 코엑스에서, 아침명상과 공양은 봉은사에서 이뤄진다. 특히 전국의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봉은사에 모여 참가자들을 위한 공양을 준비, 뛰어난 한국의 사찰음식을 전세계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 매일 공식 일정 후에는 연등행렬과 법문, 서울야경 투어 등을 진행, 불교를 넘어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전세계 수행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6월 27일 오후 5시 진행되는 폐막식 후에는 사찰순례도 이어진다. 6월 28~30일 오대산 월정사와 인제 백담사, 양양 낙산사를 순례한다. 순례 기간 동안 사찰참배와 함께 자연 속에서 마음 고르기, 세계 평화와 환경에 대한 염원을 담은 숲 건강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40여개국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장 본각 스님은 "최근 우리는 우리가 발전시켜온 문명과 작금의 세계정세가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뼈아프게 실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한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하고, 지혜와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이 두루 참석해 함께 성장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등록은 홈페이지(http://sakyadhita2023.kr)에서 가능하다. 4월 23일까지 사전등록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접수할 수 있다. 등록비에는 5일간 대회 입장권, 사찰식 아침 · 점심공양, 오전 · 오후 다과, 환영연, 대회 자료집, 기념품 등이 포함된다.

한편 '붓다들의 딸' 이라는 뜻을 가진 샤카디타는 1987년 설립됐다. 세계 여성불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각국 여성불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 한 세계평화구축과 인류 이익을 위한 자비로운 사회활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대만, 네팔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세계불교여성대회를 개최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샤카디타 코리아는 2013년 7월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과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세계여성불자들과 교류하고 여성불자들의 국제적 리더십 역량을 증진하며 양성평등한 불교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대회 참석, G.E.P.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샤카디타 포럼 등의 활동을 한다.

# 공수처장 시무식서 찬송가…불교계 '공분'

**시무식서 본회퍼 목사 시 소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송가 불러**
**"타종교인 불편해" 내부 의견도**
**종교편향특위, 종평위 "퇴진하라"**
**김진욱 "불교계 심려끼쳐 죄송"**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1월 2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불교계는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독실한 개신교인인 김진욱 처장은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故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 를 소개한 뒤, 이 시를 기반으로 한 찬송가 '주 선한 능력으로' 를 불렀다. 김 처장은 찬송가를 부르다가 꺽꺽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 모습을 지켜본 공수처 구성원 대부분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고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보기엔 부담스럽다"는 반발도 나왔다고 알려졌다.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른 행위에 대해 공수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 처장이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인데, 구성원들에게 단합된 마음이나 정의로운 마음을 강조하다 울컥한 것 같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김 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대성통곡을 했다는 소식에 불교계는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광 스님은 "특정종교의 신앙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공공기관 시무식에서 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 종교 편향적 행위를 한다면 그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처장의 시무식 찬송가 사안은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오는 1월 16일에 열리는 종교편향특위 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교편향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도 1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종평위는 성명서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종교를 여과 없이 드러낸 행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정기관 책임자 자질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도 종교편훼, 편향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분노에 김 처장은 1월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신년사 말미에 본회퍼의 시 첫 소절을 인용 · 소개한 뒤 해당 시를 가사로 하여 작곡된 노래를 즉흥적으로 부른 바 있다"면서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만,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의 언행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부대중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 말씀드린다"면서 "앞으로 저는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한 치의 치우침 없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 장학금 3억 원 희사

**1월 4일 교내 정각원서 전달**
**학내 구성원 '동국중흥' 다짐**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사진 왼쪽)이 1월 3일 열린 동국대 신년하례에서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건학장학금 3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이 등록금 · 취업 걱정없는 동국대를 기원하며 장학금 3억 원을 희사했다.

자승 스님은 1월 3일 교내 정각원에서 열린 신년하례에서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건학장학금 3억 원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장학금은 2023년 계묘년 첫 장학금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자승 스님은 2021년 4월 29일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취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1년 만에 약 14억 원의 정제를 동국대에 희사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전액장학금 사업이 본격화되며, 많은 동참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신년하례에는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을 비롯해 이사장 성우 스님, 상임이사 성월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정충래 · 이은기 · 민병덕 이사, 감사 원명 스님, 총장 직무대행 종호 스님, 이영경 WISE캠퍼스 총장,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진명 스님, WISE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박기련 건학위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등 학내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내 사부대중은 신년하례를 하며 동국대 중흥을 기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조계종 사노위, 노조법 요구 2600배 동참

**1월 3일, 여의도 국회앞서 촉구**
**동신 · 현성 스님 등 26명 동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가 노조법 2 · 3조 개정운동본부와 함께 2600배를 하며 노조법 재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월 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진행된 '신년맞이 노조법 2 · 3조 개정과 환노위 개최를 촉구하는 2600배' 에는 원청의 책임 회피와 손해배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와 청소노동자, 철도 비정규직, 학습지 ·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노동자, 불교 · 천주교 · 개신교 등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동참했다. 이날 동참자 26명은 100배씩 모두 2600배를 하며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외쳤다. '26' 이란 숫자는 노조법 개정 뒤 흐른 26년을 뜻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사회안전망도 없이 위험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가족들의 생계조차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은호 기자


2023년 정월 · 음력 2월 윤달

1월 22일 ~ 2월 19일 · 3월 22일~4월 19일

해인사 성지순례

불자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인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인사는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불교의 삼보(三寶)라고 일컫는 佛(쌍둥이 비로자나부처님),
法(팔만대장경), 僧(희랑대사상)을 국보로 보유한 최초의 사찰입니다.
해인사에서 국보로 나투신 삼보 친견의 인연 공덕으로 복되고 희망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순례 특전 (단체)신청시–일주문에서 장경판전까지 내부관람 (스님의 안내 설명. 공양 제공) ※ 사전 단체접수에 한함


佛 쌍둥이 비로자나부처님(국보)


法 팔만대장경(국보)


僧 희랑대사상(국보)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 (055)934-3000 Fax 934-3010